

## 管理面の點檢을 좀더 徹底히

오래 前에 發刊된 1974年 12月號 <火災安全點檢>誌 14面을 보면 “昨年(1973年) 5月中 日本 東京消防廳이 東京市內 主要建物에 대한 防火點檢을 實施한 結果 ‘New Japan’ 호텔 등 相當數가 不良했다.”는 記事가 나온다. 果然 1982年 2月 8日 New Japan 호텔에서 끔찍한 火災事故가 發生하여 우리 나라 사람을 포함한 33名이 목숨을 잃음으로써 우리에게 “뿌리 없는 열매 없다.”는 眞理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 주는 同時에 防災業務를 擔當하고 있는 우리의 任務와 使命感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는 機會를 주었다.

近來에 유난히 큰 人命被害를 同伴한 火災·爆發事故들이 잇달고 있어 우리에게 警鐘을 울려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事故의 經過를 살펴 보면 안타까운 點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大邱 “K 호텔”의 火災事件을 例로 들어 보자. 이 호텔은 延面積이 不過 5,000 m<sup>2</sup>인 작은 規模였으나 火災가 發生하자 그 當時 호텔에 있었던 83名中에서 10名이 목숨을 잃고 19名이 負傷을 입었다. 대체 그 主原因이 무엇이었던가? 이 호텔은 그간 繼續 우리의 安全點檢을 받아 왔고 많은 指摘事項들이 있었으나 施設의 改修가 그런대로 조금씩은 되어 가고 있었다. 다른 建物에 비해서 그 改善程度가 월등히 나쁘다고 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이미 設置해 놓은 設備조차 여러가지 理由를 들어 使用치 않음으로써 조그마한 事故로 그칠 수도 있었던 것이 大型事故로 까지 되었다는 사실이다. 例를 들어 이 호텔의 主階段에는 모두 防火門이 設置되어 있었고, 感知器의 個數가 모자라는 등의 缺點은 있었으나 그런대로 自動火災探知設備도 있었으며 屋內消火栓도 갖춰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火災後에 밝혀진 일이지만, 사람들의 出入에 不便을 주지 않으려는 配慮(?)에서였는지 防火門은 모두 開放되어 있었으며, 自動火災探知設備의 警報스위치는 테이프로 붙여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게 했고 消火栓은 訓練不足으로 使用도 못했고 火災申告도 너무 늦게 하였다는 것이다.

施設의 改善에야 많은 資金이 所要되므로 그 實現이 어렵다 치더라도 既存의 設備를 廢品化시키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나!

防火에는 흔히 3E 즉 Engineering, Education, Enforcement의 3要素가 있다고 한다. 이 中 管理面에 가까운 Education, Enforcement의 체크는 所有主의 誠實한 協調없이는 不可能하다. 그러나 管理面에 대한 徹底한 點檢이 없이 Engineering의 點檢에 重點을 둔 點檢은 반쪽 點檢 밖에 되지 않는다는 點을 우리는 銘心해야 할 것이다. 비록 어렵고 協調 받기가 수월치 않다 해도 誠意를 가지고 過去보다 管理面の 點檢을 좀더 徹底히 實施하고 建物關係者들을 啓蒙시키는 데도 努力해야 하겠다.